

<산업체 특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0143046 김재희

벌써 1학기가 다 끝나가고 산업체 특강 수업을 통해 정말 좋은 말씀과 인생의 교훈을 얻어 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에게 제일 현실적이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강연은 3월 16일 신지웅 선배님께서 해주신 강연이었습니다. 취준생인 4학년이 주가 되는 산업체 특강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은 취업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취업에 대한 루트를 신지웅 선배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학생회장이시기도 했던 선배님께서 이제는 강연자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은 취준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또한 금융권은 워너비 기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면접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의 팁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소서를 써 내려가야 하는 시기이지만 제가 봐도 아직 서투르게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쓰셨던 자소서를 공유해주시고 좋은 사이트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최근에 취업 준비를 하셨던 선배님의 조언들이기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면접에서의 상황과 분위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선배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해보니 어떤 상황이었다는 느낌 정도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0:1이라는 경쟁률로 신한카드에 입사하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취업의 문턱이 높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보다 좋은 학벌을 가진 분들, 저보다 스펙이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만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아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라는 직업은 전문적인 직업이기에 다른 분야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되어도 그 회사에 맞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업무는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배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300:1이라는 경쟁률을 뚫으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면접관 분들에게도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지만 이유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모습만이 취업 성공의 이유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내로라하는 스펙에 남들에게 지지 않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흥내는 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후회할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산업체 특강 수업을 통해 많은 강연을 들어보니 밤새우면서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발자의 삶을 그대로 연출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컴퓨터공학이라는 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공대를 가고 싶었고 공대 타이틀 중 가장 흥미가 있었던 것이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학한 후 후회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딩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어려운 만큼 재밌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준급의 실력은 아니지만 google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꽤나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아직 수준급의 실력자는 아니지만 좀 더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한다면 좋은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체 특강 수업을 듣고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려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업 준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다들 즐겁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에도 산업체 특강 수업을 들었지만 막상 4학년 때 들은 산업체 특강 수업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사회 준비생으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4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산업체 특강 수업을 들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알찬 방학을 보내야겠습니다.